

전국 첫 신안군 어선임대사업 인구유출 방지 기여

92억 투입 2019년 시작...39척 55명 0.1% 임대료로 이용 어획고 44억원 소득증대도 한몫...매년 100여척 추가 수요

전국 최초로 전남 신안군이 시작한 어선 임대사업이 인구 유출을 막는 데 한몫하고 있다.

신안군은 청년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선구입 임대사업'이 성과를 내며 지역 소득증대와 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안군에 거주하는 만 60세 미만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허가어선을 구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5년간의 임대 기간 원금과 함께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이다. 맨 처음 임대료는 연간 원금(허가어선 구입비)의 0.5%에서 코로나19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가 둔화한 현재는 감경된 0.1%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원금을 전액 상환하면 신안군에서 허가어선의 소유권을 어업인에게 이전해 준다.

은 지방소멸대응기금 58억 원과 군비 34억 원 등 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현재까지 39척(55명)의 어선이 임대돼 44억 원의 어획고를 올렸다.

어선임대사업은 호응도가 높아지면서 매년 100여 척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안군은 파악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국비 지원 건의는 물론 중앙정부 공모사업 응모, 해양수산부 시범사업 추진,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사업 규모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청년 어업인들이 허가어선을 소유하고 안정적인 어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신안군 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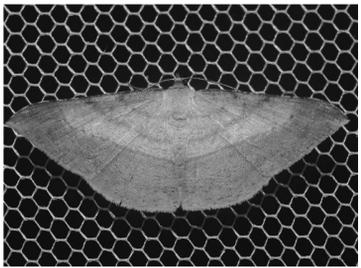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어선임대사업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 어선 임대사업의 시발이 됐던 천사1호. <신안군 제공>



신안군에서 발견된 멸종위기·미기록종 곤충.



신안군, 올해 멸종위기 곤충 1종·미기록종 4종 신규 발견

매년 생물종 발굴·조사

다양한 생물 서식지 입증

신안군이 올해 신규 생물종 발굴·조사를 통해 멸종위기종 1종과 미기록종 4종 등 총 5종의 곤충을 새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신안갯벌 등 주요 생물서식지에 대한 집중 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멸종위기종 물장군은 노린재목에 속하며 몸길이가 최대 7cm에 달해 우리나라

노린재목 곤충 중 가장 크다. 거대한 크기와 왕성한 식욕으로 물속 최상위 포식자인 물장군은 작은 물고기나 올챙이 등 다양한 수생생물들을 잡아먹으며, 자기 몸보다 거대한 개구리, 남생이, 살모사까지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장군의 서식지는 주로 논, 작은 연못, 저수지 등 흐르지 않는 물가 주변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농경지의 감소로 연못, 저수지 등의 축소로 현재 내륙의 서식지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발견된 미기록종 4종은 아직 정식 국명은 없다. 신안군은 이번 생물종 조사 결과를 내년 상반기 기준으로 논문 발표 등을 거쳐 국가생

물종목록에 올릴 계획이다.

신안군은 2022년 신규 조사에서도 신종 1종과 미기록종 4종을 발견했다. 이들 미기록종 중 1종은 지난 6월 논문에 발표해 '흑산벌꼬리박각시'로 새로운 국명을 명명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2019년 신안군 생물권보전지역 생물상 통계에 곤충이 1702종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 신안군이다"며 "생태계 다양한 생물자원을 정립하기 위해 신안군 주요 도서 생태조사, 생물종 발굴 조사 등 생태자원 발굴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진도봄동, 전국 으뜸농산물한마당대회 대상

채소류 부문 농식품장관상

진도봄동이 '제32회 전국 으뜸농산물한마당대회'에 첫 출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가 주최한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당 대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농업중앙회, 한국식품연구원의 후원으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농업수원유통센터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출품한 농산물을 곡류와 과일류, 채소류, 특작류, 화훼·특별품목 등 부문별로 분류, 품질 평가를 거쳐 우수 농산물을 선정했다.

대회에서 진도봄동은 채소류 부문에서 장관상

(대상)을 받았다. 진도봄동은 해풍을 맞고 자라 단맛이 뛰어나고 일반 배추보다 씹는 맛이 고소하며 비타민C와 칼슘이 풍부, 전국의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수상을 한 박일수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진도군 연합회장은 "첫 출품으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진도봄동과 함께 우리 지역의 다른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더욱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진도봄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진도군 농특산물을 널리 알려 판매를 통한 농가들의 실질적인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진도봄동.

땅끝 해남서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포럼

10일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대응센터 설립 대비 정책 모색

'제2회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포럼'이 10일 전남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해남군과 전남연구원 공동주관인 이번 포럼은 '한반도 기후변화대응 농업의 시작, 해남군 지역

발전 대응 전략'이 주제이다.

포럼은 김병우 순천대 명예교수의 '기후 위기와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조운섭 과수연구소장의 '정부 및 지자체 R&D 기관 간 상생 발전 방안', 해남군 오봉호 기후변화대응단장의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효율적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예정됐다.

해남군은 지난해 제1회 포럼에서 '한반도 기후변화대응 농업의 시작, 해남군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해남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의 자리를 가진 바 있다.

해남군 삼산면에 조성될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2026년 센터 건립 등 기반 조성을 마치고 본격 운영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에 발맞춰 해남군의 수용태세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해남군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산 해조비빔면·크림파스타 미국 수출길 오른다

부산국제수산물엑스포 평가회

40만달러 상당 수출계약

해조 비빔면과 해조 크림파스타 등 완도산 수산 가공 히트상품들이 미국 수출길에 오른다.

완도군은 8일 부산국제수산물엑스포에서 열린 '수산가공 히트상품 개발비 지원사업' 최종 평가회 이후 40만 달러 상당의 미국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회에는 완도바다식품의 해조 비빔면과 해조 크림파스타, 완도생명여조합법인의 전복 꼬치, ㈜제이에스코리아의 순살크림 전복 등의 제품 개발 실적과 매출 증대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회가 끝난 뒤 완도바다식품은 해조 비빔면과 해조 크림파스타 제품의 미국 수출계약(30만 달러)을 체결했다.

완도생명여조합법인의 전복 꼬치 제품은 미국 수출계약(10만 달러)을 체결했으며 제이에스코리아의 순살 크림 전복은 국내 시장 마케팅에 나섰다.

'수산 가공 히트상품 개발비 지원사업'은 완도군의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오는 2026년까지 수산물 간편식 등 신규 제품 개발을 통해 수산 식품



완도군은 8일 부산국제수산물엑스포에서 열린 '수산가공 히트상품 개발비 지원사업' 최종 평가회 이후 40만 달러 상당의 미국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산업 고도화를 꾀하는 사업이다.

완도군은 (재)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를 통해 국내 유통과 수출을 목적으로 고차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2-3개 유통·가공·수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채본부장 ejhung@

해남군 농정업무 2년 연속 대상

전남도 22개 시·군 실적 등 평가

농정·친환경·축산 분야 우수

해남군이 전남도 2023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2년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농림축산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신규시책 발굴 등 창의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의 농정업무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농업·농촌 활성화 분야, 친환경 농업 분야, 식량원예작물 분야, 농산물 판로 확대와 농식품산업 분야, 환경친화형 축산 분야, 동물방역과 축산위생 분야 등 6개 분야 41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해남군은 2017~2018 최우수상, 2022년에 이어 전남 최초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역대 고소득 농업인이 전남 최다인 753명에

이르는 등 농어업 고소득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로 465명이 입국하는 등 안정적인 인력 공급으로 농가의 큰 호응을 얻었다.

쌀 공급과잉에 대비한 논 타작물 재배 205ha, 농식품 가공·수출 기반을 위한 자체사업과 공모사업 추진, 주요 기층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고 청정 축산업을 유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10일 장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열린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2년 연속 대상 수상은 농정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국 최대 농업군으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농업 경쟁력을 키우고 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무안군, 산불예방진화대 24명 선발

4개 기동단속반 예방활동 돌입

드론감시단·진화 헬기도 운영

무안군이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달 체력 시험 등을 거쳐 가을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24명을 선발하고 기존 산림사업장 관리요원 등과 함께 산불 대응인력 30명을 기동단속반 4개반과 지역 분대(삼향읍, 해제면)로 편성 산불 예방 활동에 돌입했다.

산불조심 기간 동안 무안군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및 각 읍면 상황근무조를 통해 산불 발생 징후를 관찰하고, 농업부산물 불법소각 및 개별소각 행위 금지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 활동을 펼쳐 산

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올해는 산불 예방 특수시책으로 열화상 드론가메라를 활용한 드론감시단(2명)을 운영, 광범위한 산림지역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지역에 밀집된 문탄면의 경우 산림 연결지 내 소각 행위를 막기 위해 깎대 등 농업부산물 파쇄작업을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무안·목포·신안·진도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임차한 산불진화 헬기를 12월15일까지 운영해 대형산불 조동대응 태세를 구축하는 등 산림청 및 무안소방서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산행 휴연 금지는 물론 농촌 지역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